

# Difference in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yp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School-Age Children: Latent Profile Analysis

Geum Jin Park Ji Hyeon Kang<sup>†</sup>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latent class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profile affecting the latent class and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 about the latent clas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recruited 769 mothers of 4th, 5th, and 6th grader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the Seoul and Gyeonggi-do areas. This study evaluated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results of latent profile analysis using M plus showed that the latent class of mothers' supportive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as divided into 'passive support group' (97 subjects; 13.44%), 'average support group' (469 subjects; 59.52%), and 'active support group' (203 subjects; 27.05%). Moreover, the latent class of maternal non-supportive response was divided into 'non-supportive: non-punishment group' (281 subjects; 36.22%), 'non-supportive: avoidance group' (382 subjects; 49.5%), and 'non-supportive: confusion group' (106 subjects; 14.28%). The reward dependence and persistence temperament of childre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atent class for the maternal supportive reactions, while the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temperament of children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atent class for maternal non-supportive reactions. Moreover,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verage support group than in the active support group and in the low support group than in the average support group. The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n-supportive: avoidance group and the non-supportive: confusion group than in the non-supportive: non-punishment group. The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order of the non-supportive: non-punishment group, the non-supportive: avoidance group, and the non-supportive: confusion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clearly revealed that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s temperament could negatively affec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by increasing the level of parental non-supportive reaction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preventive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vulnerable temperament and their parents and providing direction for intervention.

**Keywords:**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class,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초등학교 고학년은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사춘기가 시작되며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심리적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

다(Kang, 2019). 더욱이 국내의 학업 열기 속 많은 학령기 아동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또래 문제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 한국의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 아동, 청소년의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88.51점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세부 지표 중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sup>†</sup>Correspondence to Ji Hyeon Ka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60 Hwarang-ro 13-gil,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counsel4u@dongduk.ac.kr

Received Jun 1, 2021; Revised Jul 26, 2021; Accepted Aug 10, 2021

장애 별로 뚜렷하게 증상과 심각도가 나타나는 청소년기와는 달리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예방이나 조기개입이 어렵고(S. H. Lee & Kim, 2004), 상당수 문제들이 호전되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화, 지속되기 때문에(Moilanen, Shaw, & Maxwell, 2010;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 문제행동은 조절곤란(dysregulation)의 문제를 보이면서 특정 장애로 뚜렷하게 분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공존이환률도 높아 차원적 접근으로의 이해가 아동기 문제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Kotov, Krueger, & Watson, 2018). 이때 Achenbach와 Rescorla (2000)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The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SEBA)로 개정한 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Achenbach와 Rescorla (2000)에 의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정서나 충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환경과 적극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공격성, 과잉행동, 비행 등이 포함된다. 반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정서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통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우울, 불안, 위축행동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Kim & Min, 2006; Muhtadie, Zhou, Eisenberg, & Wang, 2013; Mun & Lee, 2013)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런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 변인으로써의 양육행동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J. H. Oh & Cho, 2015).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구체적인 정서 관련 양육행동이라 정의되는(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은 일반적 양육행동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육행동이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해준다(Gottman, Katz, & Hoover, 1996; Eisenberg et al., 1998).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중에서도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적극적이고 목적인 정서사회화 전략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Klimes-Dougan & Zerman, 2007), 특히 자녀가 긍정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 부정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였다(Eisenberg et al., 1998; Johnson, Hawes, Eisenberg, Kohlhoff, & Dudeney,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정신병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6; Zahn-Waxler, Klimes-Dougan, & Kendziora, 1998),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많은 학문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J. H. Oh, 2013).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대한 Eisenberg 등(1998)의 분류에 의하면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비지지적 반응에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혼을 내거나 벌을 주는 처벌 반응(punitive reaction), 부모 자신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여 부정적 정서로 반응하는 심리적 고통 반응(distress reaction), 자녀의 문제나 고통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최소화하는 과소평가 반응(minimizing reaction)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지적 반응에는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격려 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자녀의 부정 정서가 좀 더 나아지도록 돕는 정서중심 반응(emotion focused reaction), 자녀의 부정 정서를 유발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문제중심 반응(problem focused reaction)이 포함된다.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Klimes-Dougan와 Zeman (2007)의 연구에서 아동의 분노관련 문제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부모들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보다 처벌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우울 증상과 관련되며(Sanders, Zeman, Poon, & Miller, 2015) 이후 성인기 정서억제, 불안과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행동문제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며(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O'Neal & Magai, 2005; Warfield, 2012),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 H. Oh, 2015; Hong & Kang, 2019). 한편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hn, 2013; Hong & Kang, 2019; Katz & Hunter, 2007; J. H. Oh, 2015;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이처럼 후기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에도 부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Eisenberg et al., 1999; Shortt et al., 2010)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국내에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J. H. Oh, 2013; Anh, 2012). 학령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다양한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및 부적 정서 경험이 증대하고, 또래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여전히 정서 조절이나 생활 관리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면이 있어(Bowlby, 1973; Kerns, Klepac, & Cole, 1996),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심리적 적응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오히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더 처벌적이고 덜 지지적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어(Klimes-Dougan & Zeman, 2007), 이 시기 부모들의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응적 기능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적응에 대하여 주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6가지 하위 요인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6가지 하위 요인을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두 점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Kim & Oh, 2017). 이러한 맥락에서 Kim과 Oh (2017)는 J. H. Oh (2013)가 Parent Attitude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PACES) (Saarni, 1989)와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의 하위영역 및 Gottman (1996)이 제시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 특성의 하위유형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하위 요인인 감정코칭 반응, 과민 반응, 감정 축소 반응을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어머니 반응 군집 유형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감정 코칭 반응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계 설정을 해주는 유형이고, 과민 반응은 어머니 본인이 자녀의 정서표현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을 보이는 유형이며, 감정축소 반응은 자녀의 부정 정서를 무시한 채 어머니의 입장과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는 유형이다. 그 결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하여 독특한 네 개의 군집유형을 발견하였다(Kim & Oh, 2017). 선행연구에서 과민 반응은 아동의 탄력성과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왔지만(J. H. Oh & Cho, 2015) Kim과 Oh (2017)의 연구에서 높은 과민 반응이 평균보다 높은 감정코칭 반응과 조합된 집단의 아동들은 '아동중심-감정코칭'집단의 아동들과 부정적 정서조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민 반응이 높아도 감정축소 반응이 낮고 감정코칭 반응이 높으면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과민 반응의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독립적 차원의 어머니 반응이 또 다른 반응과 조합되었을 때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Noh와 Jeong (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3가지 하위요인(처벌 반응, 심리적 고통 반응, 과소평가 반응)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군집을 구분함으로써 비지지적 반응 안에서도 하위요인의 조합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였지만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지지 않았다. 지지적 반응 점수 혹은 비지지적 반응 점수로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특성의 영향력을 파악하려던 것에서 나아가 비지지적으로 분류되는 하위요인의 조합으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지만 분류가 임의적이고 측정의 오차를 통제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각각에 대해 두 가지 차원의 세부 하위요인들을 가지고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임의적 분류와 측정의 오차를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고자 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변인중심(variable-centered)의 통계분석에서 벗어나 인간중심(person-centered) 접근의 통계분석을 통해 성별, 학년과 같은 외현적인 특성이 아닌 잠재된 동질성을 확보해 분류함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하위집단을 확인하는 기법이다(Muthen & Muthen, 2000).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되는 자녀의 기질을 예측변인으로 모형에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잠재계층을 산출함에 있어 자녀의 기질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실재를 보다 잘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내에서 또 지지적 반응 내에서 어떤 하위 유형이 존재하는지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들이 부정 정서의 표현을 통제하려는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져 온 점을 고려할 때(S. J. Choi, 2011),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3가지(표현격려, 정서중심, 문제중심)를 기준으로 분류된 하위집단에서는 표현격려 반응이 우세한 집단보다는, 자녀의 정서 및 문제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정서중심과 문제중심 반응이 우세한 집단이 발견될 것이라 가정한다. 아울러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3가지(처벌, 심리적 고통, 과소평가)를 기준으로 분류된 하위집단에서는 어머니 본인이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부정 정서를 과소평가하는 독특한 집단이 발견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Eisenberg 등(1998)의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에 대한 발견적 모델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또한 아동의 연령, 성, 기질과

같은 아동의 내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러한 아동의 특성은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결과물에 주는 영향력을 조절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내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질은 Cloninger (1987)에 의해 '환경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개입하는 적응 체계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되어 왔으며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 4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기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왔으나(Koo & Row, 2012; J. Y. Lee & Oh, 2010), 기질 자체만으로는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양육환경과 결합될 때 심리적 부적응이 야기된다고 하는데, 특히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은 부모의 적절한 도움이 수반되지 않을 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Balsky, Robins, & Gamble, 1984; 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J. Y. Lee (2014)의 중단 연구에서 중학생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Kang과 Oh (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과 자녀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4가지 기질 차원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두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Lee, Lee, Cho와 Lee (2016)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회고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위험회피 기질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위험회피 기질과 비지지적 반응의 인과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험회피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과 비지지적 반응의 모든 하위요인은 서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과 Kang (2019)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부적상관, 비지지적 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정적 상관, 비지지적 반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부정적 양육 및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및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일관되게 설명되어 왔다(Kang & Oh, 2011; Kim et al., 2016; Hong & Kang, 2019; J. Y. Lee, 2014). 이에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잠재계층 중, 가장 비지지적인 잠재계층에서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가 높고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취약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어머니로부터 부정 정서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안정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일수록 어머니로부터 부정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잠재계층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적응에 대하여 아동이 가진 기질적 취약성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영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이라는 통로를 통한 예방적 개입을 계획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DDWU 1711-18). 자료수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 초등학교 11곳에 재학 중인 4,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중 척도 당 10% 이상의 결측치를 보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51명을 제외한 76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자녀의 성별은 남아 369명(48%), 여아 400명(52%)이었고, 학년은 4학년 297명(38.6%), 5학년 293명(38.1%), 6학년 179명(23.3%)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74명(74.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100명, 13%), 고등학교 졸업(89명, 11.6%), 중학교 졸업(4명, 0.5%), 무응답(2명, 0.26%)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으로는 주부(377명, 49%)가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132명, 17.2%), 생산직/서비스직/기능직(68명, 8.8%), 전문직/고위관리직(63명, 8.2%), 중소기업 자영업자(43명, 5.6%), 기타(예술인, 종교인) (43명, 5.6%), 무응답(4명, 0.52%) 순으로 많았다.

### 측정도구

####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 (1994)의 심리생물학적인 성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되고 국내의 Min, Oh와 Lee (2007)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아동용 기질 및 성격검사(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7-11) 중 기질을 측정하는 문

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머니 보고형 척도로,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자극추구(14문항), 위협회피(15문항), 사회적민감성(12문항), 인내력(12문항) 등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4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자극추구 .836, 위협회피 .862, 사회적 민감성 .799, 인내력 .871로 나타났다.

####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 Fabes와 Brenzweig (1990)이 개발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대처 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CCNES)를 Kim (1995)이 번안하고 K. H. Park (200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만한 12가지 상황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표현격려, 정서중심, 문제중심(이상 지지적 반응), 처벌, 심리적고통, 과소평가(이상 비지지적 반응) 등 총 6가지 반응을 포함하여 7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현격려 반응 .862, 정서중심 반응 .823, 문제중심 반응 .793, 과소평가 반응 .778, 처벌 반응 .788, 심리적 고통 반응 .737으로 나타났다.

####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 (2001)가 개발하고 K. J. Oh와 Kim (2010)이 한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119 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61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척도는 어머니 보고형 척도로, 위축·우울(8문항), 신체증상(5문항), 우울·불안(13문항)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규칙위반(17문항), 공격행동(18문항)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2점까지의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내재화 문제행동 .885, 외현화 문제행동 .905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 집단 내에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에 있어 서로 다른 패턴을 지닌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기질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으며,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한 군집변인으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지지적 반응 3가지 요인(표현격려, 정서중심, 문제중심)과 비지지적 반응 3가지 요인(처벌, 심리적고통, 과소평가)을 각각 투입하였다. 또한 잠재계층 분류를 위해 자극추구(NS), 위협회피(HA), 사회적 민감성(RD), 인내력(P) 기질 점수를 예측변인(indicator)으로 모형에 추가한 조건 모형(conditional LPA)을 구성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정보지수(Information-Based Criteria, IC)로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87)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z, 1978), 그리고 adjusted BIC (Schlove, 1987)를 사용하였다. 정보지수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Allua, 2007; Pastor, 2007). 두 번째로, 집단 분류의 확실성과 관련된 지수인 Entropy 값을 사용하였고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잠재계층의 분류가 더 정확함을 의미한다(Muthen, 2004). 세 번째로 LRT검정을 사용하였다. LRT 검증은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LRT 검증에서  $p$  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Tein, Coxe, & Cham, 2013). 마지막으로, 분류된 잠재계층의 이론적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Mplus 6.0을 사용하였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그리고 일원변량분석을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아동의 기질 점수 4가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6가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한편, 각 변인의 성별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내력 기질( $F=5.96, p<.05$ ) 및 외현화 문제행동( $F=5.36, p<.05$ )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기질과 문제중심 반응과의 상관은  $r=-.081 (p<.05)$ 이었으나 자극추구 기질과 정서중심 반응상과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r=-.034, ns$ , 표현격려 반응 간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고,  $r=.058, ns$ . 아울러 자극추구 기질과 과소평가 반응 간 상관은  $r=.131 (p<.01)$ 이었고, 자극추구 기질과 처벌 반응의 상관은  $r=.184 (p<.01)$ , 자극추구 기질과 심리적 고통

반응 간의 상관은  $r = .151$  ( $p < .01$ )이었다. 위협회피 기질과 표현격려 반응의 상관은  $r = -.107$  ( $p < .01$ )이었고, 위협회피 기질과 문제중심 반응 간 상관은  $r = -.148$  ( $p < .01$ ), 위협회피 기질과 정서중심 반응 간의 상관은  $r = -.108$  ( $p < .01$ )이었으며, 위협회피 기질과 과소평가 반응의 상관은  $r = .091$  ( $p < .04$ ), 위협회피 기질과 처벌 반응 간 상관은  $r = .104$  ( $p < .01$ ), 위협회피 기질과 심리적 고통 반응 간의 상관은  $r = .224$  ( $p < .01$ )이었다. 자극추구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상관은  $r = .165$  ( $p < .01$ ), 외현화 문제와의 상관은  $r = .373$  ( $p < .01$ )이었으

며, 위협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 간의 상관은  $r = .448$  ( $p < .01$ ), 외현화 문제 간 상관은  $r = .161$  ( $p < .01$ )이었다.

사회적민감성 기질과 표현격려 반응과의 상관은  $r = .177$  ( $p < .01$ ), 문제중심 반응과의 상관은  $r = .242$  ( $p < .01$ ), 정서중심 반응과의 상관은  $r = .242$  ( $p < .01$ )이었고, 사회적민감성 기질과 처벌 반응의 상관은  $r = -.115$  ( $p < .01$ ), 심리적 고통 반응과의 상관은  $r = -.101$  ( $p < .01$ )이었으나, 사회적민감성 기질과 과소평가 반응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 = .003$ , *ns*. 인내력 기질과 표현격려 반응과의 상관은  $r = .264$  ( $p < .01$ ), 문제중심 반응과의 상관은  $r = .271$  ( $p < .01$ ), 정서중심 반응 간의 상관은  $r = .312$  ( $p < .01$ )이었으며, 인내력 기질과 과소평가 반응 간의 상관은  $r = -.125$  ( $p < .01$ ), 처벌 반응 간의 상관은  $r = -.189$  ( $p < .01$ ), 심리적 고통 반응 간 상관은  $r = -.237$  ( $p < .01$ )이었다. 사회적민감성 기질과 내재화 문제 간의 상관은  $r = -.198$  ( $p < .01$ ), 외현화 문제 간의 상관은  $r = -.077$  ( $p < .05$ )이었으며, 인내력 기질과 내재화 문제 간의 상관은  $r = -.197$  ( $p < .01$ ), 외현화 문제 간의 상관은  $r = -.275$  ( $p < .01$ )이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 769)

Variables	M (S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upportive reactions	
Expressive encouragement	40.68 (6.96)
Emotion focused	45.12 (5.88)
Problem focused	46.68 (5.16)
Non-supportive reactions	
Minimizing reaction	33.00 (6.60)
Punitive reaction	25.56 (6.00)
Distress reaction	34.08 (5.88)
Children's temperament	
Novelty seeking	20.27 (8.36)
Harm avoidance	22.50 (9.36)
Reward dependence	31.42 (7.09)
Persistence	21.19 (8.23)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ternalizing	4.16 (5.20)
Externalizing	6.30 (5.60)

**잠재계층의 확인: 잠재계층 수 결정 및 잠재계층 특성**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잠재계층 수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아동의 기질 패턴을 확인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의 개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집단의 개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어머니 반응의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잠재계층 분류를 아동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N = 76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EE	1											
2. EF	.534**	1										
3. PF	.558**	.800**	1									
4. MR	-.194**	.034	-.067	1								
5. PR	-.228**	-.196**	-.225**	.604**	1							
6. DR	-.353**	-.328**	-.287**	.331**	.531**	1						
7. NS	-.058	-.034	-.081*	.131**	.184**	.151**	1					
8. HA	-.107**	-.108**	-.148**	.091*	.104**	.224**	.084*	1				
9. RD	.177**	.242**	.242**	.003	-.115**	-.101**	.182**	-.327**	1			
10. P	.264**	.271**	.312**	-.125**	-.189**	-.237**	-.256**	-.199**	.228**	1		
11. IPB	-.133**	-.112**	-.132**	.132**	.184**	.154**	.165**	.448**	-.198**	-.197**	1	
12. EPB	-.125**	-.110**	-.147**	.098**	.153**	.104**	.373**	.161**	-.077*	-.275**	.737**	1

Note. EE=Expressive Encouragement; EF=Emotion Focused; PF=Problem Focused; MR=Minimizing Reaction; PR=Punitive Reaction; DR=Distress Reaction; NS=Novelty Seeking; HA=Harm Avoidance; RD=Reward Dependence; P=Persistence; IB=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B=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 $p < .05$ , \*\* $p < .01$ .

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포함된 조건모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떤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확률은 부분적으로 조건모형에 투입된 예측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uthen, 2002). 즉, 본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특정 잠재계층으로 분류될 확률은 부분적으로 아동의 기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및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Table 3을 보면 집단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AIC, BIC, Adjusted BIC의 지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LRT 값은 잠재계층의 수가 2개, 3개, 6개인 모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값은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에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다른 모형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분류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6개인 모형에서는 두 집단이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았다.

**Table 3.** Comparison of Goodness-of-fit between Latent Profiles: Supportive Reactions

Number of latent profile	2	3	4	5	6
AIC	2,724.558	2,331.530	2,234.440	2,199.762	2,154.807
BIC	2,789.589	2,433.722	2,373.797	2,376.275	2,368.481
Adjusted BIC	2,745.133	2,363.862	2,278.533	2,255.608	2,222.410
Entropy	0.720	0.851	0.777	0.741	0.767
LRT value	642.307***	401.476***	N/A	N/A	59.83*

Note. N/A = no value is calculated in that model.  
\* $p < .05$ , \*\*\* $p < .001$ .

**Table 4.** Comparison of Goodness-of-fit between Latent Profiles: Non-supportive Reactions

Number of latent profile	2	3	4	5	6
AIC	3,043.095	2,871.018	2,817.049	2,809.505	2,808.324
BIC	3,108.127	2,973.210	2,956.401	2,986.019	3,021.998
Adjusted BIC	3,063.670	2,903.350	2,861.138	2,865.351	2,875.927
Entropy	0.701	0.722	0.718	0.756	0.771
LRT Value	453.67***	184.604*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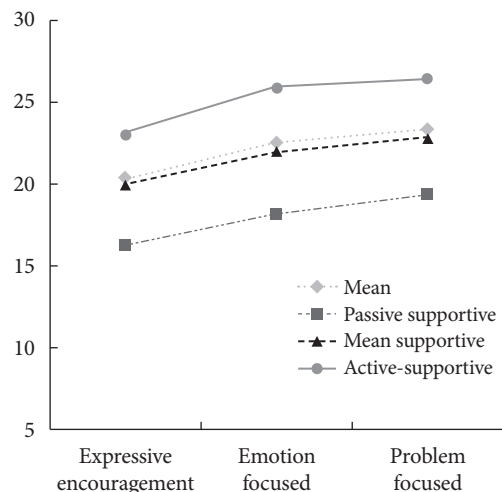
Note. N/A = no value is calculated in that model.  
\* $p < .05$ , \*\*\* $p < .001$ .

**Table 5.** 3 Class Model of Supportive Reactions: Mean of Supportive Reactions and Temperament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 focused	Problem focused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M			20.32	22.55	23.34	20.27	22.50	31.42	21.19
Class 1	Passive supportive	97 (13.44%)	16.20	18.18	19.32	22.66	23.86	27.78	22.52
Class 2	Mean supportive	469 (59.52%)	20.04	22.02	22.86	20.15	23.19	31.15	26.17
Class 3	Active supportive	203 (27.05%)	23.04	25.92	26.40	19.41	20.35	33.77	31.76

이상의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잠재계층 산출 또한 상기한 과정을 통해,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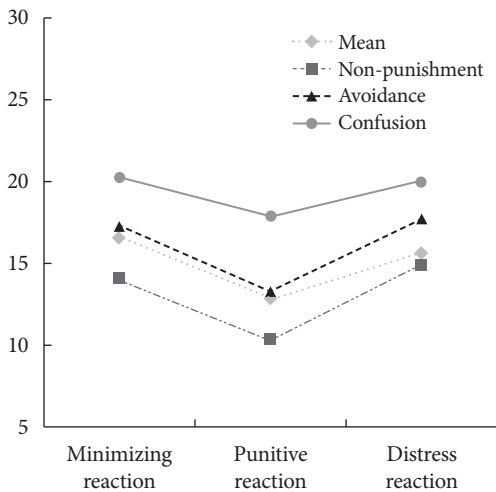
어머니 지지적 반응에 대한 3계층 모형을 Table 5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과 정서중심 반응, 그리고 문제중심 반응이 전체평균에 비해 모두 1표준편차 낮아 '소극적 지지 집단'이라고 명명하였으며 97명(13.44%)이 속한다. 두 번째 계층은 표현격려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이 모두 평균 수준으로 '평균 지지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469명(59.52%)이 속한다. 세 번째 계층은 표현격려 반응이 평균 수준이나 정서중심 반응과 문제중심 반응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았다. 정서중심 및 문제중심 반응은 단순히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부정 정서가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부정 정서를 야기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반응으로, 이 계층은 '적극적 지지 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203명(27.05%)의 사례가 속한다. 각 집단에서의 아동의 기질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지지 집단'의 경우 세 집단 중,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가장 낮았다. '평균 지지 집



**Figure 1.** Profiles of supportive group.  
Note. y-axis = CCNES.

**Table 6.** 3 Class Model of Non-supportive Reactions: Mean of Non-supportive Reactions and Temperament

			Minimizing reaction	Punitive reaction	Distress reaction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M			16.50	12.78	15.64	20.27	22.50	31.42	21.19
Class 1	Non-punishment	281 (36.22%)	13.98	10.26	14.88	17.82	19.51	32.49	29.96
Class 2	Avoidance	382 (49.5%)	17.28	13.14	17.76	21.25	24.30	31.02	26.18
Class 3	Confusion	106 (14.28%)	20.16	17.88	19.92	23.24	24.14	30.00	23.46



**Figure 2.** Profiles of non-supportive group.  
Note. y-axis = CCNE.

단에서 아동의 각 기질점수는 전체 기질점수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적극적 지지 집단’은 세 집단 중에서 아동의 자극추구 및 위협회피 기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위협회피 기질은 다른 기질과 비교하여 세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3계층 모형을 Table 6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과소평가 반응과 심리적 고통 반응이 세 집단의 평균 수준이지만 처벌 반응은 평균보다 2표준편차가 낮아 ‘비지지-비처벌 집단’이라고 명명하였으며 281명(36.22%)이 속한다. 두 번째 계층은 과소평가 반응이 세 잠재계층의 평균 수준이고 처벌 반응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반면 심리적 고통 반응은 1표준편차 높았다.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 또한 불편감, 분노, 언짢음 등의 부적 정서와 불편감을 경험하지만 자녀와 그의 부정 정서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처벌하는 등,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아 ‘비지지-회피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382명(49.5%)의 사례가 속한다. 세 번째 계층은 처벌 반응이 평균 수준이고 과소평가 반응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심리적 고통 반응이 2표준편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평가하나 자녀의 부정 정서와 관련하여 오히려 어머니 자신이 큰 불편감을 경험하는 양가적이고 혼란적인 반응을 보이는 계층을 파악되는 바, ‘비지지-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06명(14.28%)이 속한다. 각 집단에서의 기질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비지지-비처벌 집단’의 경우, 세 집단 중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가장 높았다. ‘비지지-회피 집단’에서 아동의 자극추구 및 위협회피 기질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였다. ‘비지지-혼란 집단’에서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위협회피 기질은 ‘비지지-회피 집단’과 유사하였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다. 한편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다른 기질과 비교하여 세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 기질**

어머니 지지적 반응의 최종 모형에서 아동의 기질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앞서 결정된 3개의 잠재계층 모형에서 3개의 잠재계층을 번갈아 가며 기준집단으로 두고 나머지 2개의 계층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어머니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다항로지스틱 분석은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개별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반응의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아동의 기질을 포함한 조건모형에서 산출된 것이다.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지지 집단’보다 ‘소극적 지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자극추구 기질은 ‘소극적 지지 집단’과 ‘적극적 지지 집단’, ‘평균 지지 집단’과 적극적 지지 집단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아동의 위협회피 기질은 어떤 잠재계층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극적 지지 집단’보다 ‘평균 지지 집단’과 ‘적극적 지지 집단’에, ‘평균 지지 집단’보다 ‘적극적 지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 아동의 사회적 민감



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을수록 지지적 반응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대한 아동의 기질의 영향

**Table 7.**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Results: Temperament Affecting Mother's Supportive Response Latent Profiles and Non-supportive Response Latent Profiles

	Criterion group: passive supportive		Criterion group: non-punishment	
	Mean supportive	Active supportive	Avoidance	Confusion
NS	-0.033*	-0.030	0.043*	0.067***
HA	0.017	0.004	0.045*	0.032*
RD	0.071***	0.111***	-0.031	-0.033
P	0.043*	0.124***	-0.036*	-0.067***

	Criterion group: mean supportive		Criterion group: avoidance	
	Passive supportive	Active supportive	Non-punishment	Confusion
NS	0.033*	0.002	-0.043*	0.024
HA	-0.017	-0.013	-0.045*	-0.013
RD	-0.071***	0.040*	0.013	-0.020
P	-0.043*	0.081***	0.036*	-0.031*

	Criterion group: active supportive		Criterion group: confusion	
	Passive supportive	Mean supportive	Non-punishment	Avoidance
NS	0.030	-0.002	-0.056***	-0.024
HA	-0.004	0.013	-0.032*	0.013
RD	-0.111***	-0.040*	0.033	0.020
P	-0.124***	-0.081***	0.067***	0.031*

\* $p < .05$ , \*\*\* $p < .001$ .

**Table 8.** Differences in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Supportive Group and Non-supportive Group

Variables	Whole group (N = 769)		Group	N	M	SD	F	Post hoc test (Dunnett T3)
	M	S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16	.20	1. Passive supportive	97	.23	.26	10.65***	1 > 2*
			2. Mean supportive	469	.16	.20		1 > 3***
			3. Active supportive	203	.12	.15		2 > 3**
	.12	.16	1. Non-punishment	281	.11	.19	14.19***	1 < 2***
			2. Avoidance	382	.18	.18		1 < 3**
			3. Confusion	106	.22	.25		2 = 3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12	.16	1. Passive supportive	97	.19	.21	13.22***	1 > 2**
			2. Mean supportive	469	.12	.16		1 > 3***
			3. Active supportive	203	.09	.11		2 > 3*
	.10	.12	1. Non-punishment	281	.10	.18	10.33***	1 < 2*
			2. Avoidance	382	.12	.12		1 < 3**
			3. Confusion	106	.17	.20		2 < 3*

\* $p < .05$ , \*\* $p < .01$ , \*\*\* $p < .001$ .

력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비지지-비처벌 집단'보다는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지만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어떤 계층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인내력 기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지지-혼란 집단'보다 '비지지-비처벌 집단', '비지지-회피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에 속할 확률보다 '비지지-비처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간 문제행동 비교**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시행한 후 사후검증을 통해 각 계층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집단의 동일성 검정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F = 10.65, p < .001$ )과 외현화 문제행동( $F = 13.22, p < .001$ )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nnett T3 사후 검증결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모두 '적극적 지지 집단'보다 '평균 지지 집단'에서, '평균 지지 집단'보다 '소극적 지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시행한 후 사후검증을 통해 각 계층의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집단의 동일성 검정이 가정되지 않아 Dun-

nett T3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잠재계층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 ( $F=14.19, p<.001$ ), 외현화 문제행동 ( $F=10.33, p<.001$ )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nnett T3 사후 검증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비지지-비처벌 집단'보다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지지-비처벌 집단'보다 '비지지-회피 집단'에서, '비지지-회피 집단'보다 '비지지-혼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요인으로 구별되는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녀의 기질의 영향력과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질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계층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기질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중심으로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대하여 '소극적 지지 집단', '평균 지지 집단', '적극적 지지 집단' 총 3가지 집단이 분류되었고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하여 '비지지-비처벌 집단', '비지지-회피 집단', '비지지-혼란 집단' 총 3가지 집단이 분류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서 표현격려 반응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표현격려 반응을 보이는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지적 반응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적극적 지지 집단'에서조차 어머니의 표현격려 반응은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쳤다. 높은 수준의 감정표현 격려를 보이는 잠재계층이 도출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 정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별 평균을 비교해보아도 표현격려 반응이 가장 낮고 문제중심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잠재계층 중에서 과소평가 반응과 심

리적 고통 반응은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집단만 존재할 뿐,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없었다. 특히 심리적 고통 반응은 세 집단 중 두 집단에서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녀의 부정 정서를 자녀가 느끼는 것보다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과소평가 반응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인짱아하는 심리적 고통 반응 수준이 낮은 집단이 없고 평균 또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만 존재한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 정서를 수용하고 자녀의 부정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해석을 지지해 줄 수 있다.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대하여 살펴본 Jeong과 Park (2012)의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 중 문제중심 반응은 표현격려와 정서중심 반응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지지적 반응 중에서는 심리적 고통과 처벌 반응보다 과소평가 반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정서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려 하기보다 아이의 정서를 다소 억압한 채 유발사건이나 아이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반응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류된 잠재계층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해 보인다. 아울러 한국 이민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알아보려고 하였던 Cervantes와 Seo (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 이민자 부모들의 정서관련 신념 중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와 정서표현의 자제(emotional reserve)가 추가적 요인으로 발견되었는데, 정서표현 자제는 정서를 억제하여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Jeong & Park, 2012).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이 자신의 욕구를 높게 억압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며(S. J. Choi & Jung, 2001), 부정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면모가 우세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S. J. Choi, 2011). Gottman 등(1996)이 감정코칭이라는 상위 정서 철학을 제안한 이래,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감정코칭의 역할이 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Hunter et al., 2011; Katz, Maliken, & Stettler, 2012). 감정코칭이란 자녀의 정서를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언어적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녀의 부정 정서라도 그 정서의 표현을 부모 자녀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데 더해 정서 교육의 기회로 여기는 돕는 신념을 말한다. 감정코칭이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하나의 하위요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개념과 기능을 고려할 때 CCNES의 지지적 반응과 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을 다소간 어려워하는 것으로 짐작한다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부정 정서를 축

소시치지 않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자녀의 부정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아동의 정서표현을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각각의 기질이 어머니의 반응 잠재계층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며, 어머니의 비지지적 잠재계층에 대해서는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 및 인내력 기질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아동의 기질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던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Cloninger는 자신의 기질 모델에서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은 낮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을수록 성격발달에 유리함을 피력한 바 있고(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부모가 유아에게 맞추어 주는 '유아중심의 양육태도'를 예측하였으며(Mo & Kim, 2005), 어머니의 온정·애정적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H. J. Park, Lee, Moon, & Kwon, 2010). 아울러 아동의 적응적 기질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J. H. Choi & Choi, 2018), Prinzie, Van der Sluis, De Haan와 Dekovic (2010)의 중년연구에서 아동의 우호성(benevolence)은 어머니의 과잉반응(overreactivity)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아동의 기질에 LPA를 적용해 3유형을 확인한 후 부모와 교사의 문제행동 평가점수를 비교한 Kang (201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문제행동 발현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고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는 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은 유아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 중심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심의 양육태도'를 예측하였다(Mo & Kim, 2005). 아울러 자녀의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의 적대·거부적 양육태도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H. J. Park et al., 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Coplan, Bowker, & Cooper, 2003), 아동의 활동적 기질은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J. H. Choi & Choi, 2018). 따라서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및 취약하고 까다로운 기질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한 기질을 가진 아동과 그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취약한 기질을 가진 아동은 자극추구에 의한 욕구와 위협회피에 의한 욕구의 충돌로 인하여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정서 또한 느끼기 쉽다(Min et al., 2007). 그러나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수많은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그러한 정서를 처리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감소시켜서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지지적 반응의 잠재계층 중 하나인 비지지-혼란 집단의 경우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의 원점수가 JTCI 타당화 연구(Min et al., 2007)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준(55T)에 근접한 수준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때문에 취약한 기질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에게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 정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이런 기질 프로파일의 아동들이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로부터 보다 지지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프로파일에 대하여 자극추구, 위협회피 기질에 더하여 인내력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제한적인 결과이긴 하나, H. J. Park 등(2010)의 연구에서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인내력 기질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Kang (2019)의 연구에서 아동의 인내력 기질이 낮을 시 교사나 부모의 문제행동 평가에서 불리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인내력 기질이 부족할 경우 보상이 없이 주어진 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성향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극추구나 위협회피 기질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이나 인내력 기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러한 설명은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가 심리적 고통감을 경험하고 아동의 정서를 과소평가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비수용적 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우울 및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

(Kim et al, 2016; Davidov & Grusec, 2006; Sansders et al.,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Yun과 Han (2017)의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은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Ahn (2013)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가 비지지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고,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수준이 높고 비지지적 반응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2013). Warfield (2012)의 중단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 반응은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 반응은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한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처벌 반응은 걱정과 분노에 대한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worry coping, anger coping)을 매개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과 공격성,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보고되어왔다(Kim & Nam, 2011; Noh & Jeong, 2010; Von Suchodoletz, Trommsdorff, & Heikamp, 2011). 즉,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정서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untford, Cotscorphone, Tomilnson과 Waller (2007)는 자녀의 정서적 신호를 무시하고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환경(invalidating environment)이 자녀의 정신병리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개입과 일반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을 하는 데에 있어 부모들이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담자 또한 아동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정 정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지지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비지시-회피 집단'과 '비지시-혼란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지시-회피 집단'보다 '비지시-혼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먼저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지시-회피 집단'보다 '비지시-혼란 집단'에서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이 높다. 자극추구 기질이 주로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두 집단에서 외현화 문제의 수준이 차이를 나타낸 것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까지 함께 고려된 결과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비지시-회피 집단'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아동의 부정 정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높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위협을 가하고 처벌하는 경향은 낮다. 하지만 '비지시-혼란 집단'의 어머니들은 자녀 앞에서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해 '별것 아닌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자신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자녀 앞에서 '언짢음', '짜증', '화를 냄'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은 자녀에게 더욱 혼란감을 야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까지 높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부정 정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하게 된다. 자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모델링하게 되고 결국, 정서를 부적절하게 외적으로 표출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 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을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포착하여 잠재적 집단을 발견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의 군집분석의 경우 한 명의 개인은 한 집단에만 속하도록 제시되는 것과 달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한 명의 개인이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제시하게 되어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Kim,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의 영향력을 고려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고 학년들 간 잠재적 집단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부모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사회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동 후기에는 아동의 성인 지향성이 감소하고 또래 지향성이 증가하며 생활시간과 생활공간이 점차 가정에서 학교와 사회로 옮겨져 감에 따라 또래의 중요성이 높아져간다고 하였다(J. E. Choi, Moon, & Moon, 2013; Steinberg & Silverberg, 1986).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또래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Jones, Eisenberg, Fabes, & MacKinnon, 2002)을 고려해볼 때 또래의 영향이 더욱 커져가는 아동 후기에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와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진정으로 자녀의 정서를 '사회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정서관련 변인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연구는 부족하였고 특히 국내에서 이런 시도는 더욱 미미하였다(Ahn,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아동의 정서관련 능력을 사회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드러나는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은 모두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게 인지하는 어머니라면 비지지적인 반응을 하기 쉽고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심각하게 지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후 어머니의 반응과 기질 및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동원되어 아동의 지각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해결이나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어머니-아동 간 상호작용의 관찰이나 면담 등 다양한 방법(multi-methods)과 다양한 정보원(multi-informants)을 활용한 보완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경제적지위(Social Economics Status) 등 잠재계층 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정서사회화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은 성차 역시 잠재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시사된다.

셋째, 본 연구에는 서울 및 수도권권의 11개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참여하였으나 전국 단위의 계획된 표집이 아니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표집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을 분류하여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에 영향을 받는 어머니의 반응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및 비지지적 반응 모두를 아울러 잠재계층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에 따르는 개입도 계획될 수 있어 보인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잠재계층에서 아동의 기질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불리한 기질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아동의 유리한 기질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도 보다 지지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반응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크고 작게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를 피할 수는 없기에,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부정적인 정서에 있어 보다 취약한 기질을 가진 아동들을 위해 어머니들은 아이의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아이의 불쾌감을 함께 견뎌주어야 하며(holding), 더 나아가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PGJ, graduate student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nd led manuscript preparation. KJH, associate professor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ssisted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supervised the research process.

### References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Vol. 30).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Ahn, H. (2013). *The Effects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In *Selected papers of hirotugu akaike* (pp. 371-386). Springer, New York, NY.
- Bates, J. E., Pettit, G. S., Dodge, K. A., & Ridge, B. (1998).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resistance to control and restrictive par-

- 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82.
- Belsky, J., Robins, E., & Gamble, W.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In *Beyond the dyad* (pp. 251-279). Springer, Boston, MA.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The UK: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Allua, S. (2007). *Evaluation of Single and Multilevel Factor Mixture Model Estim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ervantes, C. A., & Seo, M. (2005). *Korean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An examination of parenting in a multicultural context*.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tlanta, GA.
- Choi, J., & Choi, M. (2018).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Mediating effects of the Paren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9, 96-112.
- Choi, S. (2011). *Psychology of Korean*. Seoul, Korea: Hakjisa.
- Choi, S., & Jung, T. (2001). Psychology of Ingo for Koreans : Accompaniment of rewards and Reimbursement of fa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al Issues*, 7, 21-38.
- Choi, J., Moon, D., & Moon, S. (2013).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 99-111.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Brenzweig, J. (1990).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escription and Scoring*. Tmepe, AZ: Arizona State University.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 Guthrie, I. K.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 513-534.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Hong, J., & Kang, J. (2019). The Effects of Temperament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10, 125-164.
- Hunter, E. C., Katz, L. F., Shortt, J. W., Davis, B., Leve, C., Allen, N. B., & Sheeber, L. B. (2011). How do I feel about feeling? Emotion socialization in families of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428-441.
- Jeong, Y., & Park, H. (2012). Korean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emotion and emotion related parent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7-128.
- Johnson, A. M., Hawes, D. J., Eisenberg, N., Kohlhoff, J., & Dudeney, J. (2017).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conduct problems: A comprehensive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45, 65-80.
- Jones, S., Eisenberg, N., Fabes, R. A., & MacKinnon, D. P. (2002). Parents' reactions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at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8, 133-159.
- Kang, J. (2019). Latent profile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roblem behaviors reported by children's mothers and teacher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10, 15-34.
- Kang, J., & Oh, K. (2011).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reschoolers' Age, Temperament and Parenting for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 1-21.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 343-360.
- Katz, L. F., Maliken, A. D., & Stettler, N. M. (2012).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etic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 6, 417-422.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
- Kim, J., & Nam, E.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Stress-cop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 13-28.
- Kim, J., & Oh, J. (2017). A Study of child Emotion regulation by the cluster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3, 39-54.
- Kim, B., & Min, B.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emperament, Character,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221-236.
- Kim, H. (1995). *Mother's Perception to Children's coping with Negative Emo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2014). *Latent profile analysis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Relationship of Gender difference and Goal-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Lee, O., Lee, H., Cho, Y., Lee, W. (2016). The effects of harm avoidance, retrospected mother's nonsupportive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on depression: Mediation effects of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23.
- Klimes-Dougan, B., & Zeman, J. (2007).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f social development: Emotion social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6, 203-209.
- Koo, I., & Row, K. (2012). The comparative study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in children with internalizing, externalizing disorders and comorbid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20.
- Kotov, R., Krueger, R. F., & Watson, D. (2018). A paradigm shift in psychiatric classification: The hierarchical taxonomy of psychopathology (HiTOP). *World Psychiatry*, 17, 24-25.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Lee, J. (2014). The Longitudinal effects of temperaments and parenting on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y gend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851-877.
- Lee, J., & Oh, K. (2010).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Gender on adolescent depressive-delinquent comorbid class: A Latent profil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53-72.
- Lee, S., & Kim, 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 129-143.
- Luby, J. L., Svrakic, D. M., McCallum, K.,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9).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Psychological Report*, 84, 1127-1138.
- McElwain, N. L., Halberstadt, A. G., & Volling, B. L. (2007). Mother-and father-reported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young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78, 1407-1425.
- Min, B., Oh, S., & Lee, S. (2007).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Manual*. Seoul, Korea : Maumsarang.
- Moilanen, K. L., Shaw, D. S., & Maxwell, K. L. (2010). Developmental cascade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cademic competence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 635-653.
- Mo, I., & Kim, H. (2005). A Study on Children's character, Parental satisfaction and Rearing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4, 131-144.
- Mountford, V., Cotscorphine, E., Tolmilson, S., & Waller, G. (2007).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invalidating childhood environments in the eating disorders. *In Eating Behaviors*, 8, 48-58.
- Muhtadie, L., Zhou, A., Eisenberg, N., & Wang, Y. (2013).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nese children: The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child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653-667.
- Mun, B., & Lee, J. (2013). Effects on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of the Child's temperament,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hild'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1-60.
- Muthen, B. O. (2002).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metrika*, 29, 81-117.
- Muthe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The Sage hand 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New York, NY: Sage.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oh, J., & Jeong, Y. (2010).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al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1.
- Oh, J.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scale for measuring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 97-122.
- Oh, J. (2015).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Children's peer relations: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6, 17-37.
- Oh, J., & Cho, M.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resilience by Gende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 225-249.
- Oh, K., & Kim, Y. (2010). *CBCL 6-18 Child Behavior Checklist Manual*. Seoul, Korea: Huno.
- O'neal, C. R., & Magai, C. (2005). Do parents respond in different ways when children feel different emotions? The emotional context of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467-487.
- Park, H., Lee, J., Moon, K., & Kwon, J. (2010). Effects of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parenting attitud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 25-44.
- Park, K. (2009). *Parental reaction towards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Pastor, D. A.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8-47.
- Prinz, P., Van der Sluis, C., De Haan, A. D., & Dekovic, M. (2010).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on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child persona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8*, 1301-1323.
- Saarni, C. (1989).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nders, W. Zeman, J., Poon, J., & Miller, R. (2015). Child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402-415.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 799-808.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9-42.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 640-657.
- Von Suchodoletz, A., Trommsdorff, G., & Heikamp, T. (2011). Linking maternal warmth and responsiveness to children's self-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20*, 486-503.
- Warfield, H. K. (2012). *Child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negative response to emot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s*. Oklahoma State University.
- Yun, K., & Han, S. (2017). The Effects of Mothers' supportive and non-supportive reactions to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on Young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3*, 83-102.
- Zahn-Waxler, C., Klimes-Dougan, B., & Kendziora, K. T. (1998). The study of emotion socialization: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9*, 313-316.

## 국문초록

###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과 학령기 아동의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박금진·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이러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기질 프로파일과 잠재계층에 대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 5, 6학년의 어머니 76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의 기질,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M plus를 활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잠재계층은 '소극적 지지 집단'(97명, 13.44%), '평균 지지 집단'(469명, 59.52%), '적극적 지지 집단'(203명, 27.05%)으로 분류되었고,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잠재계층은 '비지지-비차별 집단'(281명, 36.22%), '비지지-회피 집단'(382명, 49.5%), '비지지-혼란 집단'(106명, 14.28%)으로 분류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에 대한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아동의 자각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에 대한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적극적 지지 집단보다 평균 지지 집단에서, 평균 지지 집단보다 소극적 지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비지지-비차별 집단보다 비지지-회피 집단과 비지지-혼란 집단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지지-비차별 집단, 비지지-회피 집단, 비지지-혼란 집단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이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의 수준을 높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취약한 기질의 아동과 그의 부모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아동의 기질,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계층,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